

고지도 계통 연구를 활용한 기술요소에 관한 연구

-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영연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scription Elements Using Genealogy Research of Old Maps: Focused on 「Yeongyeondo」 in National Library of France

유 종 연 (Jongyon Ryu)*

정 연 경 (Yeon-Kyoung Chung)**

목 차

- | | |
|----------------------|-----------------|
| 1. 서론 | 4. 고지도 기술요소안 제안 |
| 2. 한국 고지도와 계통연구 | 5. 결론 |
| 3. 고지도의 기술요소 비교 및 분석 | |

초 록

해외 소장 한국 고지도는 자료의 물리적 접근이 어려운 점과 고지도의 추상성 등으로 인해 연구하는데 제약이 있다. 따라서 서지사항이나 기술요소에 좀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이를 통해 고지도 연구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고지도의 계통을 연구할 때 필요한 고지도의 요소를 해주신본 계통의 고지도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고지도 기술요소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총 8개 영역의 56개 고지도 기술요소를 바탕으로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소재 주요 고지도인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영연도」에 적용한 후, 고지도 연구의 접근성과 활용성에 도움이 되는 고지도 기술요소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Due to the challenging physical access of data and the abstraction of the old map, the study of the old map, which is owned by overseas collections, is limi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lude more detailed and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in the bibliography or description elements, and to provide information that is helpful for the study of the old map through many ways. In this study, the elements of the old map based upon the system of the Haejushinbon were analyzed and added to the description elements of the old map for studying the Korean old map system. Fifty six description elements in 8 areas from the analysis were applied to 「Yeongyeondo」 in the French National Library, a major old map located overseas that was not well known in Korea. In conclusion, additional description elements of the old map were proposed to enhance accessibility and utilization of old map research.

키워드: 고지도, 프랑스국립도서관, 영연도, 기술요소, 해주신본

Old maps, BnF(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Yeongyeondo, Description elements, Haejushinbon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swiss_01@naver.com / ISNI 0000 0005 1377 482X)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kchung@ewha.ac.kr / ISNI 0000 0000 8261 5367)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4년 1월 22일 최초심사일자: 2024년 1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24년 2월 1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8(1): 199-224, 2024. <http://dx.doi.org/10.4275/KSLIS.2024.58.1.199>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한국 고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규장각의궤, 직지심체요절, 왕오천축국전 등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한국 고서 귀중본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어 개별 고서를 중심으로 한 조사가 조금씩 진행 중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82년부터 프랑스, 대만, 일본, 중국 등에 소장된 한국 고서를 마이크로필름과 종이복사로 수집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미국 하버드-옌칭 도서관, 미국 컬럼비아대학 도서관, 미국 의회도서관 등에 소장된 귀중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수집 자료의 서지와 이미지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 고문헌 종합목록데이터베이스인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23).

국립중앙도서관은 2017년에 프랑스국립도서관 필사본장서부(Département des Manuscrits)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을 실물 조사하여 총 134종 306책의 한국 고문헌을 확인하였다(한지희, 김효경, 이혜은, 2017, 307). 프랑스에 있는 한국 고서들은 두 경로로 프랑스에 들어갔는데 하나는 1866년 병인란 때 프랑스 해군이 강화도 외규장각에서 가져와 당시의 황립도서관(현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넘겨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 플랑시가 수집한 것이다. 플랑시는 1911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883점의 한국, 중국, 일본 관계 소장품을 드루오 경매장(Hôtel Drouot)에서 경매에 붙였다. 이 컬렉션은 700여 점의 한국관련 소장품이 주를 이루었고 대부분을 프랑스국립도서관이 구입했으며 이 때 구입한 플랑시 컬렉션부

터 한국본 장서의 새로운 도서 번호가 시작되었다(이진명, 2003, 2, 11-12).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한국의 모든 기관에서 하고 있는 해외 한국 고서 조사 사업들은 그 조사의 시작이 고지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어서 고지도는 서화, 전적, 회화 등 다양한 하위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한 종의 지도가 낱장으로 분리된 경우 별도의 자료로 인식하여 정리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고지도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나 조사자가 한국 고지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국외 기관의 고지도에 개인 연구자의 접근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이혜은, 2018, 19-20). 그러므로 해외 소장 고지도는 서지사항이나 기술요소에 좀 더 전문성이 추가되어 이를 통해 고지도 연구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지도는 인문적·자연적 요소를 포함하는 일정한 지역 공간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지역과 당대인들의 국토 인식이나 지역 인식에 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양보경, 1998: 2005, 36). 고지도를 이루는 많은 요소들을 고지도의 기술요소로 추가한다면 접근성이 낮은 해외 한국 고지도의 연구에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지도의 계통연구에서 사용되는 요소를 고지도 기술요소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영연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고지도는 형태적으로 낱장지도와 책속에 삽입된 삽도 형태의 지도로 나눌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정상기의 「동국지도」 중 후정보 계열인 해주신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낱장의 지도를 중심으로 한 기술요소 위주로 연구하였다.

1.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지도학은 김정호의 대축척지도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 그러나 이보다 100년 앞선 시기에 정상기는 백리척이라는 축척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지도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으며 정상기의 지도는 계속 전사(傳寫)되어 후대에 전해졌다(오상학, 1994a, 133). 그 대표적인 지도가 해주정씨 가문의 정철조(鄭喆祚 1730~1781)·정후조(鄭厚祚 1738~1793) 형제가 만든 해주신본(海州新本) 지도로 뛰어난 지도를 제작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이기봉, 2007). 해주신본은 조선 후기 지도사 발달에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지도로 평가된다(오상학, 1994a, 148). 현재 해주신본 계통의 지도는 지도에 그려진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연구자가 계보를 파악하고 계통을 분류해 해제하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소재 주요 고지도를 대상으로 고지도 연구에 도움이 되는 기술요소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국립도서관이 소장한 지도류 24종 중 「영연도(嶺沿圖)」(Coréen, 76)를 대상으로 고지도의 기술요소에 추가되어야 할 요소를 연구하였다. 「영연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경상도의 해안과 더불어 일본의 혼슈 서남쪽 일부-규슈-유구까지 합해서 그린 지도이다. 이러한 형태는 정후조의 해주신본(海州新本) 계통으로 유추해볼 수 있고 정후조가 제작했다고 알려진 「사예도」와의 연관성도 파악해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는 찾아보기 힘든 귀중한 자료이다(국립중앙도서관, 2018, 33).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영연도」를 통해 고지도내에 계통을 추론할 수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기술

요소로 제안하여 서지와 기술요소를 더욱 전문적이고 풍부하게 하여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지도」를 바탕으로 해주 정씨가문이 수정 발전시킨 지도 계열인 해주신본 계통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고지도의 요소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지도의 정의와 특징을 알아보고 조선시대의 지도 계보를 파악하여 어떠한 영향 아래 새로운 지도들이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둘째, 고지도의 계통분류와 계통연구가 이루어진 해주신본에 대한 선행연구를 하였다. 셋째, 국내외 남아 있는 해주신본으로 추정되는 성신여대 박물관의 「동국팔로분지도」와 서울대 규장각의 「조선팔도지도」, 일본 동양문고의 「좌해지도」, 그리고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영연도」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지도의 내용과 소장기관의 기술요소를 비교하였다. 넷째, 고지도의 계통을 연구한 연구자들 중 현재까지 해주신본으로 밝혀진 고지도를 연구한 연구자 3인과 계통을 연구할 때 필요한 요소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섯째,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제안한 고지도 요소를 기술요소에 추가하고 5인의 전문가 의견을 기술요소(안)에 반영하여 「영연도」에 적용해보고 최종안을 제시하였다.

1.3 선행연구

선행연구로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한국고

지도에 관한 연구, 조선 후기 해주신본에 관한 연구 그리고 우리나라 고지도 기술요소에 관한 연구, 지도 목록에 관한 연구를 조사하였다.

첫째, 프랑스로부터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고지도에 관한 연구로 국립중앙도서관(2018)은 프랑스국립도서관 필사본 장서부의 한국 고문헌을 실물 조사하였다. 이중 지도류 24종을 조사하며 우리나라에 거의 발견되지 않는 해주신본 계열로 「사예도」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영연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해은(2018)은 국외소장 한국 고지도를 조사하여 소장된 현황과 공개된 자료상황을 정리하였다.

둘째, 조선후기의 고지도 계보를 바탕으로 한 해주신본에 대한 연구로 오상학(1994a)은 현존하는 정상기 사본들을 토대로 조선 후기 지리학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동국지도 사본들의 계보를 밝혔다. 이후 오상학(1994b)은 동국지도의 사본을 토대로 제작과정을 밝히고 현존하는 동국지도 사본들의 계보를 밝혔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지도학의 흐름을 파악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해주신본이 「동국지도」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기봉(2008)은 1700년대 후반의 정상기의 「동국지도」 수정본 계열의 근거 자료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지도 제작과 문헌 기록 사이의 관계 분석을 통해 4개 수정본 계열의 제작자를 추론하여 해주신본의 제작자를 추론하였다. 양보경(2015)은 일본 최대의 세계적 동양학 전문 도서관인 동양문고(東洋文庫, The Oriental Library)에 한국 소장이 확인되지 않은 유일본 지도와 지리지 등 가치 있는 지도들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지도학 발달사를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로 해외에 소

장되어 있으나 아직 발굴되거나 연구되지 않은 자료를 연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고지도 기술 요소에 관한 연구로 이해은(2013)은 고지도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고지도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논의되어야 할 내용을 검토하였다. 표준화된 고지도 표제 선정 방안을 제시하였고 제작시기가 불분명한 고지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지도 제작시기 추정을 위한 지명변화표를 제시하였으며 고지도의 유형분류나 계통분류에 대한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후 이해은(2016)은 한국 고지도의 특성을 반영한 목록작성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라 보고 고지도 목록의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였다. 고지도 표제 선정 방안, 고지도의 지명 연구를 활용한 고지도 발행시기 추정방안, 그리고 고지도의 검색효율을 높이는 유형분류, 계통분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종연, 정연경(2020)은 독도 관련 고지도는 물리적 특성이나 문헌적 가치가 있는 역사성, 특수성, 증거적 가치를 가지는 기록물로 이를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기록물보다 의미있고 세밀하게 기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통합적, 체계적 기술을 위해 독도 고지도의 증거적 특성이 반영된 기술요소를 제안하였다.

넷째, 지도 목록에 관한 연구로 Andrew(2014)는 지도가 고대어로 신호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도는 축약된 추상적인 성질이 근본 성질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도는 과학적인 정보와 예술적인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들을 올바르게 코드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지도의 제목 변경, 누가 만든 책임이 있는지, 지도의 물리적 특성 설명 등을 통해 필요한

것을 식별하고 찾는 능력을 서지로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Bienes(2019)는 지도가 가장 오래된 표현과 표현 모델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사회, 심지어 가장 원시적인 사회에서도 보편적인 표현이라고 하였다. 고지도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분석을 어렵게 하므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작성할 수 있는 특정 규정, 사서들이 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설명하고 기술이나 경제적 자원이 없는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Mościcka와 Zwirowicz-Rutkowska(2020)는 연구를 위한 자료가 되는 고지도를 성공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디지털 도서관이나 아카이브에서 적절한 기술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지도 검색을 지원하는 관련 데이터를 기술 요소로 등록하지 않고 있어서 유로피어나 데이터 모델(Europiana Data Model, 이하 EDM)에서의 지도 기술 방법을 제안하였다. 모든 기관에 모든 유형, 범주, 이름 등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의 구현을 위해서 사서, 지도 제작자, 지리학자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종합해보면 고지도에 관한 연구 중 해주신본에 관한 연구는 일부 연구자를 중심으로 추론의 과정을 거쳐 계보를 연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도상에 표현된 여러 요소들을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고지도의 기술요소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데 이는 고지도의 연구에 있어서 물리적 접근의 어려움과 고지도의 추상성으로 인해 연구적 접근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지도의 기술요소 연구에 유형분류와 계통분류에 대한 연구가 전제되어야 하며 기록학적관점 이외에도 지리학

적 요소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지도 데이터의 통일된 문서에 대한 규칙을 세우기 위해 사서나 지리학, 엔지니어 간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국 고지도와 계통연구

2.1 한국 고지도의 정의와 특성

고지도는 흔히 전통적인 지도제작 기술에 의한 옛 지도로서, 현대적인 측량기술에 의하지 않은 지도라고 규정한다(김호동, 2013). 우리나라 지도제작은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지도제작은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존하는 고지도의 대부분은 조선시대에 제작되었다(이상태, 2007, 31). 조선 전기의 태종, 세종, 세조는 전국 공간의 재편, 영토의 개척,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바탕으로 국가적으로 새로운 地圖와 地誌 편찬에 힘썼다(양보경, 2016, 31). 조선 전기 지도학은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에서 절정에 달하고 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와 『도별도』에 반영되어 조선 후기로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된다. 즉 조선 전기의 실측지도의 전형인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는 정상기의 지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대에서 가장 정확한 지도로 인식되었다(오상학, 1994a, 137; 전상운, 1988, 325).

조선 후기의 지도제작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도가 정상기의 『동국대지도』이다(이상태, 2007, 37).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계속 수정 보완되어 김정호의 『청구도』가 나오기 전까지 선도적 위치에 있었다. 현존 정상기

지도의 사본들의 계보는 정상기의 원도를 따르는 계열과 지도의 윤곽과 구성 체제, 수록 내용 등이 다소 변형된 수정본 계열로 크게 나뉜다. 수정본 계열에 속하는 해주신본의 우리나라 해안선 윤곽은 이후 지도에서 계속 유지되기에 조선 후기 지도학사상 차지하는 영향력은 다른 지도보다 컸다(오상학, 1994a, 148).

이상태(2007, 42)는 현존하는 고지도의 대부분인 조선시대의 지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첫째, 산맥과 강줄기를 중요시하여 그렸다. 둘째, 각 군현 경내의 관사 배치, 산천의 형세, 도로의 원근과 이수(里數), 그리고 인접한 군현명을 반드시 기록하였다. 셋째, 백두산을 반드시 표기하였다. 넷째, 고지도를 제작할 때 화공들의 참여로 동양화에 가까운 美가 있다. 다섯째, 조선시대 선조들은 만주까지 포함하는 지도를 그렸다.

종합해보면 조선시대의 고지도는 정책과 양성지의 『동국지도』에서부터 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와 『도별도』와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그 수정본들, 그리고 김정호의 『청구도』, 『대동여지도』까지를 우리나라 고지도의 큰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계보연구는 정상기의 『동국지도』 사본의 계보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그 중 정상기의 『동국지도』 수정본 계열인 해주신본은 지도의 요소가 풍부한 영향력 있는 지도로 평가받는다. 그러므로 해주신본의 고지도 요소는 계보 연구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2.2 한국 고지도의 계통 연구

지도의 제작이란 개인의 독창성과 기법으로

도 만들 수 있지만 그것 역시 지도 제작상 모든 방법들을 종합한 다음에 가능한 것이다(오상학, 1994a, 136-137). 고지도의 계통연구는 이런 지도 제작상의 방법들 중 고지도 내의 요소를 파악하여 계보를 파악하게 된다. 고지도에서 하천 내용을 보면, 유로 숫자와 묘사 내용, 지명의 이칭과 부분칭, 표기 등에서 지리지와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지도별로 서로 다르다. 이들은 지도 계열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김기혁, 2018). 이러한 요소들로 지도의 계열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는 편집되어 새로운 지도를 재생산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궁궐, 관아 등의 인문지리 정보는 제작 시기와 목적, 축척에 따라 달라진다. 지도의 자연 지리 정보 묘사에서 산지의 경우 기제 지명은 유사하나 표현 방법은 점(point) 형태인 독립된 산지로, 선(line)의 형태인 산줄기 모습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된다. 산지와 달리 하천의 경우, 모든 지도에 예외 없이 선(line)의 형태로 묘사된다. 분류와 지류의 묘사 방법, 발원지와 종점에 이르는 유로의 경로 등의 묘사 내용은 실제와 유사하다. 이는 고지도에서 하천 유로의 비교 분석이 지도의 계열을 파악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기혁, 2019, 7).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많은 사본들을 남기게 되는데 정상기 지도의 초기 전사본과 정상기의 『동국지도』의 사본을 전사한 후정본들을 분석하여 만든 계보는 제작자들의 인적계보, 시기, 그리고 표현요소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의 윤곽과 내용 등을 토대로 파악해 낸다(오상학, 1994a, 143). 이렇게 파악된 정상기의 『동국지도』 사본들의 계보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원도 계열과 초기 후정본 계열, 후기 후

정본계열 중 해주신본과 원도계열과 혼합된 형태의 후정본 계열이 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후기 후정본 계열 중 해주신본은 그대로 전사하지 않고 다소 수정, 변형시킨 지도들인데 조선후기 지도 발달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지도로 평가된다. 특히 이전과 달리 많은 양의 지리적 정보들을 표현하고 그 표현체계나 방법 등이 매우 정교해졌다는 점이 일차적 의미가 있고 이들이 표현해 내고 있는 우리나라 윤곽은 이후 지도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지도학사상 차지하는 영향력은 여타의 지도보다 컸다(오상학, 1994a, 148).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 사본의 계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한국 고지도의 계통의 전반을 다루지는 않으나 그 중 계통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된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통 중 가장 고

지도 요소가 세밀하게 사용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해주신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 고지도의 기술요소 비교 및 분석

고지도의 기술요소를 비교하기 위해서 해주신본 계통의 지도 소장기관과 기술요소를 비교하여 보았다. 국내에 해주신본 계통의 지도로 성신여대박물관의 「동국팔로분지도」와 서울대 규장각의 「조선팔도지도」가 있고 국외에는 일본의 동양문고의 「좌해지도」와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영연도」가 있다. 현재 해주신본 계통의 지도는 지도에 그려진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계보를 파악하고 계통을 분류해 해제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요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 사본의 계보 정리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보	계통	내용
원도 계열	하동정씨가 중심의 전사	한반도의 윤곽등 전체적인 표현 형태가 변하지 않고 후대에 변화된 지명등의 내용들만 수정된 사본
후정본 계열	초기후정본	수정본 계열의 사본들은 원도와 달리 한반도의 윤곽이 상당 부분 수정됨
	해주신본 (해주정씨가 수정)	그대로 전사하지 않고 다소 수정변형시킨 지도로 조선후기 지도 발달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지도로 평가됨. 구성체나 윤곽은 원도를 따르지 않고 상당히 수정되었으며 표현 내용들은 이전의 초기 수정본보다도 훨씬 풍부해짐. 특히 군현내의 모든 면명과 군현경계선이 표시되었는데 이는 수정본중 초기에는 없었던 것.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맥과 하천으로 대표되는 자연적 요소 표현이 정교해졌다. 둘째, 지도상에 표현된 인문적 정보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셋째, 원도계열에서는 거의 볼수 없던 각 읍간의 경계를 표시하였다. 넷째, 점례가 보다 정교해졌다
	후정본계열이면서 원도 구성체제인 사본	정상기의 원도를 대폭 수정한 후정본 계열의 사본이면서도 구성 체제는 정상기의 원도를 따르고 있는 지도도 있다. 특징으로는 윤곽과 표현 내용은 대략 초기 수정본과 흡사하나 섬들을 포함한 해안 지역의 윤곽이 매우 자세해졌다는 점이다.

출처: 오상학, 1994a, 143-150 재구성

3.1 지도별 소장기관과 기술요소 비교

3.1.1 동국팔로분지도

『동국팔로분지도』는 성신여대 박물관이 소장중인 해주신본 계통의 고지도이다. 『동국팔로분지도』는 조선시대의 전국 지도책이다. 인쇄본이 아닌 손으로 그린 필사본으로서 산과 지명, 강, 바다 등에 색깔이 칠해져 있다(성신여대대학교박물관, 2023). 이 지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 원도 계열 사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지리적 정보를 담고 있다. 오상학(1994a, 147)은 이전 사본들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산맥과 하천의 자연적인 요소 표현이 원도계열 사본들보다 훨씬 정교해졌는데 산맥과 하천 중에서 10리가 넘는 것은 명칭이 없더라도 모두 그려 넣었다. 둘째, 지도상에 표현된 인문적 정보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셋째, 정상기의 원도계열 사본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각 읍간의 경계를 표시하였다. 넷째, 범례가 보다 정교해졌다.

『동국팔로분지도』를 소장중인 성신여대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은 문화유산표준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아카이브 담당자는 밝혔다. 홈페이지의 기술내용은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의 기술요소는 아니며 사용자가 보기 편하도록 정리된 서지사항이다. 성신여대 박물관 홈페이지에 표현되고 있는 기술요소는 시대, 크기, 등록번호, 첨부파일이다. 성신여대 박물관에서 사용하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기술요소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3.1.2 조선팔도지도

『조선팔도지도』는 규장각에 소장되어있는 해주신본 계통의 지도이다. 해주신본을 필사한 지도가 규장각의 『조선팔도지도』이다. 『조선팔도지도』는 지도상에 표현된 내용을 토대로 고증해 볼 때 해주신본이 제작된 1784년과 멀지 않은 시기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된다. 『조선팔도지도』와 해주신본인 『동국팔로분지도』를 비교해 보면 지도의 내용이나 윤곽이 거의 일치한다. 이전 시기의 사본들과의 차이점은 지리적 정보의 양이 많고 그 표현체계나 방법 등이 정교해졌다는 점에서 여타의 동국지도 사본들보다 조선후기 지도학사상 매우 중요하다(오상학, 1994a, 145).

<표 2>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기술요소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기술 요소	소장구분명	국적	등록일자	출토지(시도)	지정일
	소장품번호	재질(소)	사진번호	출토지(시군구)	보험관계기록평가액
	세부번호	재질(대)	입수처	출토지:세부주소	보험관계기록평가액단위
	주수량	특징	입수주소	출토지:전체주소	보험관계기록대여기관
	주수량단위	입수일자	발굴기간 From	관리번호	보험관계기록대여기간From
	명칭	입수연유	발굴기간 To	지정구분	보험관계기록대여기간To
	이명칭	가격	장르(1단계)	지정번호(대표)	보험관계기록비고
	시대	가격(단위)	장르(2단계)	지정번호(세부)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2024

「조선팔도지도」가 소장되어 있는 규장각은 국내 최대의 고지도·지리지 소장처로 다양한 유형의 고지도와 지리지를 소장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유일본 자료로서 정교한 양식으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자료적 가치도 매우 높다. 고지도는 총 603종(건), 6,097도엽을, 지리지는 822종, 1,347책을 보유하고 있다(허태구, 2014, 6). 규장각의 고지도 기술요소는 표준을 따로 쓰는 것은 없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소로 확인할 수 있다. 규장각은 모든 소장 고지도의 해제작업을 통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서 해제작업의 규칙을 설계한 연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규장각 해제의 설계원칙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첫째, 한문장으로 특성을 제시한다. 둘째, 제작자와 제작시기를 쓰고 지도의 특성을 자연적 요소와 인문적 요소를 바탕으로 기술한다. 셋째, 결론에는 반드시 지도의 의미와 가치를 기술한다였다. 현재 규장각 고지도는 원서명, 현대어서명, 청구기호, 편저자(한자), 편저자(한글), 판본사항, 간행지, 간행

자, 간행연도, 책권수, 체크기, 사부분류, MF번호, 원문정보, 이용가능디지털자료 등이 표시되어 있고 특히 원문정보에서 해제부분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다(〈표 3〉 참조).

3.1.3 좌해지도

「좌해지도」는 현재 일본의 동양문고에 소장 중인 해주신본 계통의 지도이다. 19세기의 지도로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해주신본의 수정본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주신본 계열의 사본으로 가장 내용이 풍부하다. 규장각소장의 「조선팔도지도」와 성신여대박물관소장의 「동국팔로분지도」 두 종의 해주신본 지도는 원본보다 대형이라 면명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좌해지도」는 해주신본 계열중 축소본이고 글씨, 그림, 지형이 정교하다는 특징이 있다(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2023).

「좌해지도」가 소장된 동양문고는 일본에서 가장 큰 한국본 고서 소장 기관이다. 동양문고 소장본들 중 한국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표 3〉 규장각 소장 「조선팔도지도」의 기술요소

기술요소	내용	기술요소	내용
원서명	朝鮮八道地圖	간행연도	[18世紀 中盤-19世紀 初(正祖-純祖 年間: 1776-1834)]
현대어서명	조선팔도지도	책권수	10枚, 彩色圖
청구기호	古4709-54-v.1-10	체크기	35×24.5 cm(大小不同)
편저자(한자)	[作者未詳]	사부분류	史部 地理類 地圖 全圖
편저자(한글)	[작자미상]	M/F번호	M/F86-35-11-J
판본사항	筆寫本	원문정보	총설: 정상기의 「동국지도」 수정본계통의 하나로..(생략) 책별: 경기도(62.8×63.8cm), 경상도(113.8×74.0cm), 전라도(110.0×85.4cm), 충청도(54.0×98.8cm), 평안도북부(75.0×81.0cm), 평안도[북부제외](76.0×92.0cm), 함경남도(141.6×81.0cm), 함경북도(89.0×84.0cm), 황해도(71.0×86.6cm) (책별 해제 생략)
간행지	[刊地未詳]	이용가능	원문이미지
간행자	[刊者未詳]	디지털자료	개별지도 해제

출처: 규장각, 2024

〈표 4〉 동양문고 소장 『좌해지도』의 기술요소

기술요소		내용	
請求記号	결제기호	VII-2-235	VII-2-235
書名·卷數	서명·권수	左海地圖	좌해지도
編著者	편 저자		
出版事項	출판사항	寫本	필사본
冊數	책수	8冊	8쪽

출처: 동양문고, 2024

유일본들이 많이 있어 지리학적 가치가 큰 자료들이 많다(양보경, 2015, 723). 동양문고에서 『좌해지도』를 기술해놓은 기술요소는 請求記号(결제 기호), 書名·卷數(서명·권수), 編著者(편 저자), 出版事項(출판사항), 冊數(책수)가 있으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과 연구 협정을 맺고 있어 2012년 1월부터 한국 고문헌 자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2023).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에서 『좌해지도』의 원문 이미지와 기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에서 볼 수 있는 기술요소는 분류, 판종, 발행사항, 형태사항, 현소장처, 청구기호, 안내정보,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구성 및 내용, 서지적가치, 내용적 가치, 참고문헌, 이미지이다(〈표 4〉 참조).

3.1.4 영연도

『영연도』는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소장중인 해주신본 계통의 지도이다. 『영연도』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는 없는 지도이나 국립중앙도서관 조사 시 해주신본과의 관련성이 언급되었고, 본 연구를 통해 『해주신본』 계보를 연구한 연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주신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에서 밝혀진 『영연도』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영연도』는 희귀한 지도이며 미완성이 아닌 영남지방만 그려진 지도라 보았고 일본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군사적 목적이 있는 지도임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대마도지형까지 파악할 수 있으며 통신사들이 일본의 최신지도를 입수해 오면서 한국 부분은 『동국팔로분지도』를 바탕으로, 일본 쪽은 일본지도 『교정대일본원비도(校正大日本圓備圖)』를 삽입한 지도이다. 성신여대 박물관 소장 해주신본과 똑같지는 않고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내용이나 형태를 고려해봤을 때 같은 해주신본 계통의 사본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영연도』의 소장기관인 프랑스국립도서관에 한국 고문헌은 필사본장서부에 소장되어 있다. 필사본장서부는 왕실도서관(la bibliothèque des rois de France)의 자료들이 주로 구성된 곳으로 동서양의 귀중본 자료들이 많이 있다. 프랑스국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기술요소는 Cote(분류번호), Titre(제목), Date(날짜), Langue(언어), Support(용지), Importance matérielle(물질적 특징(수량, 크기 등)), Dimensions(치수), Localisation physique des documents(문서의 물리적 위치), Présentation du contenu(내용소개), Modalités d'acquisition(취득정보),

Informations sur le traitement(처리정보), Conditions d'accès(접근정보)가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2023년 10월 2일 연구자가 방문하여 프랑스국립도서관 필사본장서부 한국고지도 담당자를 만나 실물을 확인하고 면담한 결과, 프랑스국립도서관의 기술방법은 DTD/EAD형식이며 PixML로 인코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5〉 참조).

EAD는 원고 또는 보관 문서의 설명을 구조화할 수 있는 XML 언어 기반 형식이다. 이 형식은 1990년대 미국 버클리 대학도서관에서 만들어졌다. 연구 도구의 계층적 조직과 구성 요소 간의 상호 관계를 복원하며 수준 간 정보 상속 원칙을 유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프랑스국립도서관, 2023).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사용하는 DTD EAD의 주요 요소를 ISAD(G) 기준으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3.2 고지도 기술요소 비교

3.2.1 고지도 정보시스템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

이혜은(2013)은 고지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소장기관의 고지도 정보서비스 그리고 고지도 관련 메타데이터의 비교·분석과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고지도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지도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선정하였다. KORMARC(KOREan MACHine READable Cataloging),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tandard), CDWA(Categories for the Description of Works of Art), VRA(Visual Resources Association)와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미술정보관리시스템,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만든 설계이다. 기록관리학적인 관점에서 만든 기술요소로 고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표 5〉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영연도』의 기술요소 및 내용

기술요소		내용	
Cote	분류번호	Coréen 76	코리아 76
Titre	제목	령 연도, 嶺沿圖, Lyōn yōn do.	령연도, 沿圖嶺, Lyōn yōn do.
Date	날짜		
Langue	언어	coréen	한국어
Support	용지	Papier	종이
Importance matérielle	물질적 특징	1 carte pliante en couleur	1 컬러 접이식 카드
Dimensions	치수	97 x 117 cm	97 x 117 cm
Localisation physique des documents	문서의 물리적 위치	Réserve	예약
Présentation du contenu	내용 소개	Carte à grande échelle du littoral de la province de Gyeongsang (경상 / 慶尙) non décrite par Courant.	경상도 연안의 대규모 지도 (경상 / 慶尙) 내용 소개는 없다
Modalités d'acquisition	취득정보	Collin de Plancy 793	콜랭 드 플랑시 793의 인수 조건
Informations sur le traitement	처리정보	Notice rédigée et encodée en EAD par Héricher Laurent.	Héricher Laurent에 의해 EAD로 작성되고 인코딩된 처리 정보.
Conditions d'accès	접근조건	Communication exceptionnelle, soumise à l'autorisation du directeur du département, sur demande motivée.	접근조건은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외적인 통신이다.

출처: 프랑스국립도서관, 2023

〈표 6〉 DTD EAD 의 기술내용

ISAD(G)	EAD	ISAD(G)	EAD
3.1.1 Reference code(s)	<eadid> with COUNTRYCODE and MAINAGENCYCODE attributes <unitid> with COUNTRYCODE and REPOSITORYCODE attributes	3.4.1 Conditions governing access	<accessrestrict>
3.1.2 Title	<unittitle>	3.4.2 Conditions governing reproduction	<userrestrict>
3.1.3 Dates	<unitdate>	3.4.3 Language/scripts of material	<langmaterial>
3.1.4 Level of description	<archdesc> and <c> LEVEL attribute	3.4.4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echnical requirements	<phystech>
3.1.5 Extent and medium of the unit	<physdesc> and subelements <extent>, <dimensions>, <genreform>, <physfacet>	3.4.5 Finding aids	<otherfindaid>
3.2.1 Name of creator	<origination>	3.5.1 Existence and location of originals	<originalsloc>
3.2.2 Administrative/ Biographical history	<bioghist>	3.5.2 Existence and location of copies	<altformavail>
3.2.3 Archival history	<custodhist>	3.5.3 Related units of description	<relatedmaterial> <separatedmaterial>
3.2.4 Immediate source of acquisition	<acqinfo>	3.5.4 Publication note	<bibliography>
3.3.1 Scope and content	<scopecontent>	3.6.1 Note	<odd><note>
3.3.2 Appraisal, destruction and scheduling	<appraisal>	3.7.1 Archivist's note	<processinfo>
3.3.3 Accruals	<accruals>	3.7.2 Rules or conventions	<descrules>
3.3.4 System of arrangement	<arrangement>	3.7.3 Date(s) of descriptions	<processinfo><p><date>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리 메타데이터(Administrative Metadata) 27개, 기술 메타데이터(Descriptive Metadata) 31개, 보존 메타데이터(Preservation Metadata) 8개, 정보기술 메타데이터(Technical Metadata) 6개, 이용 메타데이터(Use Metadata) 3개의 요소 등 모두 5개의 카테고리, 75개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였다(이혜은, 2013, 163-164).

3.2.2 독도 관련 고지도의 기술요소(안)

유종연, 정연경(2020)은 역사적 중요도가 있는 독도 관련 고지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국제기록기술표준(ISAD(G))의 7개의

영역을 기준으로 국내외의 독도 고지도를 소장한 12개의 기관사례조사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ISAD(G)에 적용 가능한 공통영역과 ISAD(G)에 없는 특수영역으로 나누어 기술요소안을 도출한 후, 고지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기술요소로 식별영역, 배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접근과 이용조건영역, 연관자료영역, 주기영역, 기술통제영역, 기타영역 등 총 8개의 영역과 50개의 기술요소를 제안하였다. 물리적 특수성과 고문헌으로서의 역사적 의미와 증거적 가치를 가지는 기록물에 대한 세밀한 기술을 제안하였다(유종연, 정연경, 2020).

3.2.3 고지도 기술요소 연구 및 기관 비교

4개의 기관별 4개의 기술요소와 2개의 고지도 기술요소 연구를 종합하여 총 6개의 기술요소를 국제표준인 ISAD(G)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그 중 프랑스국립도서관은 기관에서 사용한다고 밝힌 EAD를, 성신여대박물관은 기관에서 사용한다고 밝힌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총 8개의 기술영역에 63개의 기술요소 중 기타요소에 포함되어있는 분류, 범례, 목차, 인문, 제작기법, 보존처리, 시스템관련정보, 로컬정보, 제작시기근거, 색인어, 주제명, 작성기관, 상태 및 전시순위, 독도표기 여부, 독도의 위치, 지명의 이명칭, 지명의 변천, 구성, caption, 참고문헌, 인용방법, 현존여부, 간행지, 간행자, 사부분류의 기술요소들은 각각 1개의 기술요소연구나 기관에만 포함되어 있는 독자적인 요소이며 그 외에 다른 기술요소들은 모두 2개 이상의 기관이나 기술요소연구에 포함되어 있었다(표 7) 참조).

3.3 계통연구의 요소 분석

지도의 제작은 개인의 독창성이나 기법으로 기록될 수는 있지만 그것 또한 지금까지의 지도 제작상의 모든 방법들을 종합한 다음에 가능한 것이다. 그 방법을 파악하는 것은 지도의 중요한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오상학, 1994a, 137). 이혜은(2016)은 지도제작의 역사적 맥락에서 계통분류를 정리하여 이를 비통계색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있다. 고지도에서의 계통분류는 고지도 내의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을 판단하여 연구자가 계보를 파악한다. 따라서 계보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

한 고지도 내의 요소를 서지에 기술요소화한다면 추상적 표현의 지도를 이해하거나 부족한 서지정보로 연구의 어려움이 있는 자료에 대한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해주소본에 대한 연구를한 연구자 3인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계통연구에 필요한 고지도의 요소를 파악하였다. 인터뷰는 2023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고지도의 계통연구에 사용되는 요소, 해주소본 계통을 파악하는 요소, 『영연도』의 해주소본 기능성과 그것의 판별에 사용되는 고지도 요소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 A는 고지도에 필요한 기술요소로는 표현기법, 형태, 내용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표현기법에는 채색유무에 따른 분류, 필사본, 인쇄본, 회화식, 도면식, 기호의 해석, 형태적으로 포맷(책자, 첩, 족자 등)이 있고 내용적으로 자연적 요소는 윤곽(해안선 등), 산줄기, 강줄기, 산맥, 하천, 유로의 형태 등이 있으며 인문적 요소로는 읍치의 위치, 도로망, 군사적 요소(산성, 중요군사기지 위치), 각각의 지명들(산이름, 강이름, 고개이름, 고을이름, 역원이름, 나루터이름, 포구이름)등이 있다고 보았다.

연구자 B는 지도에서 계통이 매우 중요하며 계통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이용자가 지도를 다 다르게 인식하므로 계통이 꼭 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지도는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베끼는 것이므로 계통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계통마다 계통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최초의 원본을 표시하면 계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필사본이나 일부 오류나 축소 등도 특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최초 원본보다 축소한 것인

〈표 7〉 고지도 기술요소 연구 및 기관 비교

기술 영역	ISAD(G)	이해용의 고지도 정보시스템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	우용언, 경연경의 복도, 고지도의 기술요소(안)	프랑스 국립도서관		중앙문고 「위해지도」	규장각 「조선왕조지도」	성신여대박물관 「동국팔도지도」	성신여대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영면도」	DTD EAD				
식별 영역	참조코드	분류기호, 관리번호, 등록정보	참조 코드	분류번호	<eaid>with COUNTRYCODE and MAINAGENCYCODE attributes <unitid>with COUNTRYCODE and REPOSITORYCODE attributes	결계 기호	청구호	등록번호	소장품번호/세부번호/ 관리번호/지정구분/ 지정번호(대표/제부)
	제목	지도명, 포제	제목	제목	<unititle>	서명, 링크	원서명, 현대어서명		명칭/이명칭
	일자	제작사항(제작시기)	일자/시대	날짜	<unitdate>		간행연도	시대	시대
배경 영역	기술계층		기술계층		<archdesc> and <c> LEVEL attribute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수량, 부피, 크기)	크기, 도판크기, 형태사항(강경, 채색, 수량, 도판수량, 판식)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	차수, 용지	<physdesc> and subelements <extent>, <dimensions>, <genreform>, <physfacet>	책수	책권수, 책크기	크기	주수량/주수명단위/ 제결(대)/제결(소)
	생산자명	지도제작자, 제작사항	생산자명	위독정보	<originatn>	편 저자	편저자(한자), 편저자(한글)		
내용과 구조 영역	행정연혁/개인 이력 기록관리 이력		행정연혁/개인이력 기록관리 이력		<highist> <custodhist>				
	수집/인수 과정의 출처		수집/인수 과정의 출처		<acqinfo>				입수일자/입수연유/입수처/ 입수주소/발기간From/ 발공기간to/출토처
	범위와 내용	내용/해제	범위와 내용	내용 소개	<scopecontent>				
내용과 구조 영역	평가, 평가 처분일정 정보	위치정보	추가이관	내용 소개	<appraisal>				
	정리체계	위치정보	정리체계	처리정보	<accruals>				
	접근조건	이용정보	접근조건	접근조건	<arrangement>				원문정보, 해제
접근과 이용 조건 영역	재생산 조건	인어	재생산 조건	인어	<accessrestrict>				소장구분명
	인어와 자체	인어	인어와 자체	인어	<userestrict>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제결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물리적 특징	<langmaterial>				특성
연관 자료 영역	원본의 존재와 위치		원본의 존재와 위치	문서의 물리적 위치	<physfacet>				
	사본의 존재와 위치	복제정보	사본의 존재와 위치	출판사항	<otherfindaid>				
	관련 기술단위	인관자료	관련 기술단위	출판사항	<originalsloc>				
주기 영역	출판주기	판사항, 판중, 판차	출판주기	출판사항	<altformavail>				
	주기	주기사항	주기	주기	<relatedmaterial>				
	아카이브스트 주기	아카이브스트 주기	아카이브스트 주기	아카이브스트 주기	<separatedmaterial>				
기술 통제 영역	규칙과 협약	규칙과 협약	규칙과 협약	규칙과 협약	<bibliography>				
	기술 일자	기술 일자	기술 일자	기술 일자	<odd><note>				
	출판사항	판사항	출판사항	출판사항	<processinfo>				
주기 영역	주기	주기사항	주기	주기	<describers>				
	아카이브스트 주기	아카이브스트 주기	아카이브스트 주기	아카이브스트 주기	<processinfo>				
	규칙과 협약	규칙과 협약	규칙과 협약	규칙과 협약	<date>				
기술 통제 영역	기술 일자	기술 일자	기술 일자	기술 일자	<processinfo>				
	출판사항	판사항	출판사항	출판사항	<date>				
	출판사항	판사항	출판사항	출판사항	<date>				

기술 영역	ISAD(G)	이해의 고지도 정보시스템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	유종연, 정연경의 복도 고지도의 기술요소(안)	프랑스국립도서관		동상문고 「좌해지도」	규장각 「조선왕도지도」	「동국팔도지도」	성신여대박물관 문화유산보존관리시스템 장르(단계, 장르)단계 보존관계기록 가격 국적 문화재지정요소
				「영연도」	DTD EAD				
기타	분류								
	보존관계		보존 관계	보존 관계					
	가격		가격	가격					
	국적		국적	국적					
	문화재지정	문화재정보	문화재	문화재					
	축척	축척	지도의 수치 데이터	지도의 수치 데이터					
	범례	범례	대상지역	대상지역 (수목범위)					
	대상지역	대상지역	목차						
	문차	문차	인문						
	인문	인문	제작기법						
	제작기법	제작기법	유형분류	독도 고지도의 유형					
	유형분류	유형분류	개통분류	개통분류					
	개통분류	개통분류	보존처리	보존처리					
	보존처리	보존처리	디지털화	디지털				이용가능 디지털화자료	
	디지털화	디지털화	시스템 관련정보						
	시스템 관련정보	시스템 관련정보	도표정보						
	도표정보	도표정보	대어정보	전시/대어/이벤트					
	대어정보	대어정보	전시장보	전시/대어/이벤트					
	전시장보	전시장보	기타포제	이명					
	기타포제	기타포제	제작 시기 근거	제작 시기 근거					
제작 시기 근거	제작 시기 근거	색인어	색인어						
색인어	색인어	주제명	주제명						
주제명	주제명	작성 기관	작성 기관						
작성 기관	작성 기관	상태 및 전시순위	상태 및 전시순위						
상태 및 전시순위	상태 및 전시순위	독도 표기 여부	독도의 표기 여부						
독도 표기 여부	독도 표기 여부	독도의 위치	독도의 위치						
독도의 위치	독도의 위치	지명의 변천	지명의 변천						
지명의 변천	지명의 변천	지명의 이명칭	지명의 이명칭						
지명의 이명칭	지명의 이명칭	caption	caption(문장, 삽화설명, 장식모티프)						
caption	caption	구성	구성(인구, 전담, 도문, 산지, 하천, 방위, 범례등)						
구성	구성	참고문헌	참고문헌(사이트 참조, 지도 참조, 텍스트 참조, 원천 수록해제지)						
참고문헌	참고문헌	이용방법	이용방법						
이용방법	이용방법	현존여부	현존여부						
현존여부	현존여부	간행지	간행지				간행지		
간행지	간행지	간행가	간행가				간행가		
간행가	간행가	사부분류	사부분류				사부분류		
사부분류	사부분류								

지 확대한 것인지가 계통을 파악할 수 있기에 크기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연구자 C는 지도 검색에 필요한 기술요소로 지도의 재료(종이인가 나무인가), 지명이 중요하며 고지도의 내용과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제작자와 제작 시기, 그리고 외부적 요인으로 형태(형식, 종이 지질, 채색, 물감, 서체, 글씨)가 있으며 내용으로 지도에 표현된 요소로 지명, 산지, 하천, 자연적 요소, 인문적 요소가 있다고 하였다. 자연적 요소의 대표로 고개, 섬, 만, 도서가 있으며 인문적 요소로 행정지명, 군현, 면명이 있고 고을, 군현 지도 하위의 지도에는 창고, 다리, 주막 등이 있으며 군사적인 요소로 섬, 포구와 관련된 시설, 역, 원, 도로 관련 요소가 있다. 근거를 말해주는 제작연도, 제작연대, 재질수준, 제작자, 그리고 위치관계(면, 군현, 고개), 인문, 자연적 요소가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수정되어 있는지가 수정분을 판단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해주신본 계보연구에 관해서 연구자 C는 정상기의 지도와 해주신본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군현 경계와 면경계에 군현경계선의 유무, 위치의 차이로 보았으며 해주신본의 경우는 면 이름이 들어간 면명이 특징이라고 보았다. 정상기의 지도에 와서야 근대 과학적 요소(지도의 거리, 축척, 방향)가 갖추어졌으며 산, 하천, 나루터 등이 많이 들어갔고 진보, 창고, 나루터, 역원등을 표시했는데 해주신본은 여기에 오류들을 수정하고 훨씬 자세하게 된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 연구자 B는 정상기의 지도에 와서 함경도 압록강 유로가 변화되었는데 해주신본인지를 파악하는데 지도 도법을 비교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계통연구에 사용되는 고지도 요소는 <표 8>과 같다.

<표 8> 계통연구에 사용되는 고지도 요소

기술요소	세부사항		비고*
표현기법		채색유무, 필사본, 인쇄본, 회화식, 도면식, 기호의 해석	A,B,C
형태	포맷	책자, 첩, 족자, 장황과 형식, 지도의 재료, 종이 지질, 채색, 물감, 서체, 글씨	A,B,C
내용	자연적 요소	운곽(해안선등), 산줄기, 강줄기, 산맥, 하천, 유로의 형태, 고개, 섬, 만, 도서	A,B,C
	인문적 요소	읍치의 위치, 도로망, 행정지명, 군현, 면명의 유무, 창고, 다리, 주막, 군사적 요소(산성, 중요군사기지 위치), 섬, 포구와 관련된 시설, 역, 원, 도로관련 요소	A,B,C
	지명	산이름, 강이름, 고개이름, 고을이름, 역원이름, 나루터이름, 포구이름	A,B,C
그 외 특징	내용과 가치, 근거	제작연도, 제작연대, 재질수준, 제작자	C
	위치관계	인문·자연적 요소가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 위치관계(면, 군현, 고개)	B,C
	수정여부	수정여부, 최초의 원본, 오류수정여부, 축소여부	B,C
	근대과학적 요소	지도의 거리, 축척, 방향	C
	경계선의 유무	군현경계, 면경계선	C

*A: 연구자 A 의견, B: 연구자 B 의견, C: 연구자 C 의견

4. 고지도 기술요소안 제안

4.1 고지도 기술요소 설계

해주신본을 소장중인 국내외의 4개 기관의 기술요소와 2개의 고지도 기술요소안, 계통연구 연구자 3인이 제시한 고지도 계통연구에 필요한 요소들을 비교하여 고지도 기술요소안을 제안하였다. 기본구성은 국제 표준인 ISAD(G)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8개 영역에 56개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계통연구자들이 선정한 고지도의 요소들을 내용과 구조영역의 고지도와 요소 및 구성에 넣었으며 하위요소로 자연적요소, 인문적요소, 지명, 위치관계, 경계선 유무 등을 추가하였다. 수정과 축소는 내용과 구조영역에 넣었으며 최초의 원본은 연관자료영역에 넣었다.

이렇게 제안한 기술요소안을 고지도 전문가 3인과 기록전문가 2인의 전문가 평가를 받아 총 5인이 모두 선택한 요소는 필수요소로, 3인 이상의 선택한 요소는 권장요소로, 2인 이하가 선택한 요소는 선택요소로 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으로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는 모든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소로 필수요소에 넣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 필수요소에 넣었으며 세부항목으로 상황, 재질, 채색, 수량, 크기, 무게, 판형, 형태, 복제유형을 하위요소에 넣었다. 고지도의 판형(필사본, 목판본, 동판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여 식별영역에 판종을 추가하였으며, 해주신본 같은 경우 8도 지도첩으로 되어 있으나 낱장으로 남아있는 지도가 있는 경우 표제(표지의 제목)와 내제(지도 도면 상단의 제목)등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 구분하여 제목의 하위 기술요소로 넣었

다. 요소의 중복가능성이 있는 부분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공개 요소와 비공개 요소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록관리 입장에서 계층을 어느 정도까지 나눌 것인지를 고려하여 기술요소를 작성하여 계열이나 철 보다 건 기술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기술요소가 세부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 한국고지도의 경우 생산자가 80%이상 미상이며 수치데이터가 크기를 제외하고는 사용되는 요소가 거의 없으나 고지도 전체에는 필요한 요소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고지도의 접근성은 고지도 연구와 활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어 영인본의 존재와 접근, 디지털자료, 데이터베이스의 유무, 이미지 제공 사이트 등이 자세할수록 좋다고 보아 참고문헌에 영인본과 이미지 제공 사이트를 추가했으며 기타영역에 데이터베이스의 유무, 디지털자료를 넣었다. 불필요한 요소들은 일부 제외하고 통합 가능한 요소들을 통합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은 <표 9>와 같다. 프랑스로부터 국립도서관에 소장 중인 한국고지도인 『영연도』에 기술요소 최종안을 적용하여 예시를 제시해보았다. 고지도의 계통을 분류할 수 있는 고지도 요소를 기술요소에 첨가함으로써 기술요소가 더욱 풍부해지고 데이터를 보다 상세히 읽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고지도에 암호화된 기호들은 과거의 역사와 함께 필요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열쇠가 된다. 그러나 많은 부분의 데이터가 부족한 도서관이나 기록관의 기술요소들은 최소화된 상태

〈표 9〉 고지도 기술요소 최종안

영역	기술요소	하위 기술요소	세부사항(예시: 영연도)
특별 영역	참조 코드*		소장기관의 특수성에 맞게 기술단위를 구분할 수 있는 알파벳이나 숫자로 순번이나 의미를 갖는 참조코드를 구성 예시) Coréen 76
	제목*	표제	표제등 고지도의 제목을 반드시 기술 예시) 표제: 嶺沿圖
		내제	지도첩에서 분리되어 낱장으로 보관중인 지도중 지도 도면 상단의 제목이 있으면 기술
	이명**		본제목과 동등하게 표현된 다른 언어의 제목이나 다르게 부르는 명칭 예시) 영연도=嶺沿圖=Lyōn yōn do
	제작연도/제작연대*		고지도의 제작, 발행, 배포일자 기술, 발행년이 불분명할시 []안에 제작년불 명을 넣거나 추정연대를 적는다. 예시)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
	제작 시기 근거**		제작 시기의 근거가 되는 내용 예시) 유구국이 일본 영토로 포기되어 있는 점, 경상도에 병영, 수영이 존치하 고 있는 점등으로 지도의 작성시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추정된 다(청주고인쇄박물관, 2017).
	국적**	제작국**	제작국 기술, 제작당시의 국가명과 현재의 국가명을 같이 기술 예시) 조선/한국
		소유국**	소유국 기술 예시) 프랑스
	기술계층		기록관에서 기술계층을 사용할 경우 기술단위를 나타내는 군, 계열, 철, 건 등 기술단위계층을 기술
	사부분류		경부, 사부, 자부, 집부 등의 고문서 분류 기술 예시) 吏部 /地理類 /地圖 /道別圖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	장황	책자, 첩, 족자, 낱장, 배접 등 예시) 1 carte pliante en couleur
		재질	종이, 삼배, 비단, 가죽, 돌 등 예시) 종이
		채색	단색(무채, 유채), 천연색 등 예시) 컬러
		수량	예시) 1장
		크기	전체크기, 도면 크기 등 세부 사항으로 기술 ex) 97 x 117 cm
		무게	자료의 무게
		판형	필사, 목판, 동판 등 예시) 필사본
		형태	평면, 입체 등 예시) 평면
	복제유형	원본, 복제물 예시) 원본	
색인어**		지명, 단체명, 인명, 사건명 등으로 기술 예시) 경상, 영연도, 동국지도, 정상기, 해주신본	
주제명	이름/주제**	접근점이 될만한 이름, 주제 등을 기술 예시) 영연도, 해주신본, 동국지도	
	맥락(역사적/문화적맥락)	고지도에 포함된 중요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	
	국립중앙도서관주제명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	

영역	기술요소	하위 기술요소	세부사항(예시: 영연도)
배경 영역	생산자명*	생산자명*	지도의 생산자, 제작자, 기여자, 기술자 예시) [생산자불명]
		생산자의 역할*	생산관련자의 역할을 기술
		생산자의 국적*	생산관련자의 국적을 기술
		생물년·호·자	생산관련자의 생물년, 자, 호등을 기술
		발행 배포 및 간사사항**	발행, 배포 및 간사사항
	행정 내력/개인이력**		생산과 축적에 관련된 개인(가문)이나 기관의 이력을 기술 예시) 프랑스국립도서관(축적기관): 최초의 왕립 도서관으로 국립 도서관으로 바뀐뒤에 1994년 프랑스 국립 도서관(BnF)이라 불리며 오늘날 프랑스 공화국의 국립 도서관이 되었다. 중세 말부터 축적된 왕실 소장품을 계승한 이곳은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 기관 중 하나이다 (프랑스국립도서관, 2023).
	기록관리 이력**		기록물의 보존 책임자, 보존장소, 소유관계 등의 변동을 기술 예시)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 플랑시가 한국에서 수집한 것으로 1911년 3월 27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883점의 한국, 중국, 일본 관계 소장품을 드루오경매장(Hôtel Drouot)에서 경매에 붙였으며 대부분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구입했다(이진명, 2003).
	작성 기관**		기록 작성 기관에 대한 기술 예시) 프랑스
	수집/인수 직전의 출처**		수집, 이관, 인수, 출처에 관한 정보 기술 예시) 드루오경매장(Hôtel Drouot)에서 콜랭 드 플랑시의 793점 인수
	문화재**	문화재환수**	문화재환수 관련 경위, 연고, 국적, 수량, 국적 등
	문화재지정**	문화재지정 관련 번호, 명칭, 지정에 관한 내용	
	보험 관계	보험 사항에 관한 내용 기술	
	가격	구입가격 기술	
내용/구조 영역	범위와 내용*	해제/초록*	고지도의 내용, 가치를 요약하여 기술 예시) 영연도는 우리나라 경상도 해안뿐만 아니라 일본의 혼슈 서남쪽 일부-큐슈-유구까지 합해서 그린지도로 이와 같은 형식의 지도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 경상도 해안 모습이 정후조의 해주신본계통과 동일하다(국립중앙도서관, 2018).
		유사지도*	유사 지도에 관해 기술 예시) 해주신본 계통의 지도로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의 『동국팔도분지도』와 규장각의 『조선팔도지도』가 조사되었다(국립중앙도서관, 2018).
		기법/스타일/도법*	지도의 제작에 관련된 기법/스타일/도법, 표현방식이 회화식인지 도면식인지 등을 기술
		목적/제작배경*	목적 및 제작배경 예시) 일본까지 지도에 그려진 점은 군사적 목적이 있는 지도임을 보여준다.
	상태 및 전시순위**		상태와 전시 순위
	추가이관**		향후 추가이관이나 수집에 대한 예정에 대한 기술
	정리체계		지도 자료의 질서 및 내부구조, 정리체계
	고지도의 요소 및 구성**	자연적요소**	윤곽(해안선등), 산줄기, 강줄기, 산맥, 하천, 유로의 형태, 고개, 섬, 만, 도서 예시) 영연도의 경우 해안선이 정후조의 해주신본 계열과 같으며 물줄기는 바다색과 같은 색으로 산줄기는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다.
		인문적요소**	읍치의 위치, 도로망, 행정지명, 군현, 민명, 창고, 다리, 주막, 군사적 요소(산성, 중요군사기지 위치), 섬, 포구와 관련된 시설, 역, 원, 도로관련 요소 예시) 영연도는 영해, 청하, 연일, 장기, 부산, 진주를 잇는 경상도 해안 지역의 행정구역, 병영, 수영, 봉수, 역참, 도로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일본의 구주지역의 행정 구역과 도로망을 부기한 지도이다(청주고인쇄박물관, 2017).
		지명**	산이름, 강이름, 고개이름, 고을이름, 역원이름, 나루터이름, 포구이름
위치관계**		인문·자연적 요소가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	

영역	기술요소	하위 기술요소	세부사항(예시: 영연도)
		경계선유무**	군현경계, 먼경계선 예시) 영연도는 해주신본의 특징인 먼경계선이 붉은 색으로 그려져 있다.
	수정/축소 여부**		수정여부, 오류수정여부, 축소여부
	범례**		수록된 범례의 내용
	목차**		내용에 대한 목차 기술
	인문**		인문, 지도제작자의 서명등을 기록 예시) 본문의 경상도 영해 옆과 일본 장문지역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장서인이 적혀있다(청주고인쇄박물관, 2017).
	지도의 수치데이터 및 근대 과학적 요소**		지도의 거리, 축척, 방향, 규모, 좌표등 수치와 관련된 정보 기술 예시) 지도의 좌우에 동서, 상하에 남북을 한자로 표기하여 방위를 나타내었다(청주고인쇄박물관, 2017).
	지도의 계통분류(최초의 원본)**		계통을 알 수 있는 최초의 원본 기술, 동람도 계통, 정상기 동국지도 계통 등 고지도의 계통에 관한 기술 예시) 정상기의 『동국지도』의 후기 후정본 계열인 정후조의 해주신본 계통으로 볼 수 있다.
	고지도의 유형**		세계지도, 동아시아도, 관방지도, 전도, 도별도, 팔도분도 등 유형별 기술 예시) 관방지도
	지명의 변천**		지명이 변경된 사항 기술
	지명의 이명칭		지명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명칭 기술 예시) 지도의 명칭에 있는 영연(嶺沿)은 경상도를 가리키는 영남의 해안이라는 뜻이다.
	CAPTION**	문장**	
삽화설명**			지도안에 그려진 삽화에 관한 기술 예시) 구주 九州 해안에는 아란타선 阿蘭陀船과 당주唐舟 등 서구에서 온 배들의 개략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다(청주고인쇄박물관, 2017).
장식모티프**			지도안에 그려진 장식에 관한 기술
대상지역(수록범위)**		지도의 대상지역, 범위에 관한 기술 예시) 최북단의 영해부터 최서단의 하동, 남해까지 우리나라 경상도의 해안뿐만 아니라 일본의 혼슈 서남쪽 일부-큐슈-유구까지 합해서 그림 지도이다(국립중앙도서관, 2018).	
접근 이용 조건 영역	접근조건**	접근/이용**	이용이나 접근에 대한 기술 예시) Communication exceptionnelle, soumise à l'autorisation du directeur du département, sur demande motivée(접근조건은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외적인 통신이다).
		소장위치**	소장위치에 대한 기술 예시) 프랑스국립도서관 필사본장서부
	재생산 조건**		저작권 등 재생산 관련 조건 기술
	언어와 자체**		사용된 언어 정보 기술 예시) 한자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자료의 물리적 형태, 재질(종이의 재질 포함), 규모, 색채, 크기, 상태 예시) Papier/1 carte pliante en couleur(종이/1 컬러 접이식 카드) 행정구역명은 검은색으로 표기하고 붉은색 바탕에 검은색 태두리로 나타내었다. 울산과 진주에 병영이, 통영과 동래에 검은색 네모로 수영이 존치했음을 나타내었다(청주고인쇄박물관, 2017).
	검색 도구		소장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검색 도구에 관한 기술 예시) 프랑스국립도서관 자료는 프랑스종합목록 CCFr(Le Catalogue Collectif de France)을 통해서 검색 가능하다.
	전시/대여/이벤트		고지도의 전시이력이나 대여 또는 이벤트에 대한 기술 예시) 1911년 3월 27부터 30일까지 드루오경매장(Hôtel Drouot)

영역	기술요소	하위 기술요소	세부사항(예시: 영연도)	
연관 자료 영역	일본의 존재와 위치**		일본의 존재나 이용 가능성 등에 대한 기술	
	사본의 존재와 위치**		사본의 존재나 위치 및 이용 가능성 등의 정보를 기술	
	관련 기술단위**		관련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정보를 기술 예시) 「영연도」는 해주신본 계통의 지도로 정상기의 「동국지도」의 후기 후정본 계통의 지도이다. 한국에는 성신여대박물관에 「동국팔도분지도」와 규장각에 「조선팔도지도」가 같은 계통의 지도이며 일본의 동양문고에도 해주신본 계통의 「좌해지도」가 있다.	
	출판주기**		인용사항이나 해당 고지도의 출판물에 대한 정보기술 예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한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한국고문헌」과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발간한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자료집」에 소개되어 있다.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참고가 되는 사이트 예시) 규장각, 동양문고, 한국학자료센터, 성신여대박물관
		참고지도**		참고가 되는 지도 기술 예시) 동국팔로분지도, 교정대일본원비도, 동국지도, 조선팔도지도, 좌해지도
		참고텍스트**		관련 기술문 기술 예시) 정후조는 정철조의 동생으로 1784년(정조 8)에 정상기와 정철조의 지도를 기초로 크기는 같지만 훨씬 자세한 해주신본을 제작했는데 현재까지 「동국팔로분지도」와 「조선팔도지도」 2종이 조사되었다. 그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만주, 서쪽으로는 중국의 북경과 복건성, 동쪽으로는 일본, 남쪽으로는 유구를 합한 사예도를 제작하고 사예지를 편찬했다고 한다. 이같은 측면을 고려할때 「영연도」는 그 자체가 희귀본일 뿐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않은 정후조의 「사예도」와의 연관성 측면에서 살펴볼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국립중앙도서관, 2018).
		원천**		지도제작과 관련되어 원천이 되는 내용 기술 예시) 통신사들이 일본의 최신지도를 입수해 오면서 한국 부분은 「동국팔로분지도」를 바탕으로, 일본쪽은 일본지도 「교정대일본원비도(校正大日本圖備圖)」를 삽입한 지도이다. 성신여대 박물관 소장 해주신본과 똑같지는 않고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내용이나 형태를 고려해봤을 때 같은 해주신본 계통의 사본으로 볼 수 있다.
		수록해제지**		고지도가 수록된 조록지, 해제지색인지에 대한 기술 예시) 국립중앙도서관(2018) 「프랑스국립도서관소장 한국고문헌」, 청주고인쇄박물관(2017)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자료집」
		이미지		이미지 제공사이트 예시) 없음
영인본			영인본의 존재와 접근방법 기술 예시) 없음	
주기 영역	주기**		추가된 설명 또는 해당항목이 없는 내용을 기술 예시) 경상도 해안과 군사 요충지의 교통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일본 구주 지역의 해안 도서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청주고인쇄박물관, 2017).	
기술 통제 영역	아키비스트 주기		기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기술담당자 기술 예시) Hélicher Laurent	
	규칙과 협약		관련규칙이나 협약 기술 예시) DTD/EAD형식이며 PixML로 인코딩하고 있다	
	기술 일자		기술 일자 기술	

영역	기술요소	하위 기술요소	세부사항(예시: 영연도)
기타 영역	인용 방법		인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예시) 2014년 1월 1일 부터 BnF는 Etalab 임무에 의해 개발된 국가의 “오픈 라이선스”에 따라 설명 메타데이터(서지 및 전거 데이터)를 배치했다. 이 메타데이터의 사용은 무료이며 소스에 대한 언급과 복구 날짜 표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무료이다(프랑스국립도서관, 2023).
	현존 여부		현존 여부를 기술 예시) 현존
	디지털**		디지털 ID, 디지털화 작업, 디지털 자료, 온라인 형식 등을 기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의 유무 예시) Le Catalogue Collectif de France(CCFr)
	보존처리**		보존처리내용, 처리기간, 상태점검, 처리부서, 담당자, 보존처리이력 예시) SPAR(분산형 디지털 문서의 보존)
	시스템관련정보**		고지도 시스템 관련 정보 기술

*필수요소, **권장요소, 그 외에는 선택요소

에서 전문적이지 않은 내용들로 되어 있어 해외 소장 한국고지도를 연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고지도 연구는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데 해외소장 한국고지도의 연구는 물리적 접근성의 취약과 함께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하여 해외소장 고지도는 연구의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용적 요소가 풍부하고 계보연구가 많이 진행된 해주신본을 대상으로 하여 계통연구에 사용되는 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국내외 남아 있는 해주신본으로 추정되는 1) 성신여대 박물관의 『동국팔도분지도』와 2) 서울대 규장각의 『조선팔도지도』, 3) 일본 동양문고의 『좌해지도』, 4) 그리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영연도』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지도의 내용과 소장기관의 기술 요소를 비교하였다. 둘째, 이제까지 연구된 고지도 기술요소인 『고지도 정보시스템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이혜은, 2013)안과 『독도 관련 고지도의 기술요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유종연, 정연경, 2020)안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고지도의 계통을 연구한 연구자들 중 현재까지 해주신본으

로 밝혀진 고지도를 연구한 연구자 3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계통연구에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고지도 기술요소에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한 기술요소안을 3인의 고지도 전문가와 2인의 기록학 전문가에게 평가받아 기술요소(안)을 제안하고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해주신본인 『영연도』의 사례에 적용해보았다. 그 결과 고지도 연구에 중요한 요소들이 고지도 기술요소에 추가되었다. 이를 활용한다면 서지가 훨씬 더 풍부해져 해외소장 고지도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고지도 계통연구에서 사용되는 요소를 기술요소에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해주신본이 소장된 기관만을 선정하여 연구하였으나 고지도의 주요 소장기관인 박물관, 기록관, 도서관이 각각 다른 기술표준을 사용하고 각 기관으로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차후에는 복원 연구에서 필요한 요소를 확인하고 고지도의 기술요소를 추가하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후속연구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출처 <http://kostma.korea.ac.kr/>
- 국립중앙도서관 (2018).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출처 <https://www.nl.go.kr/>
- 국립중앙박물관 출처 <https://www.museum.go.kr/site/main/home>
- 김기혁 (2018). 17~18세기 제주도 고지도의 하천 묘사에 나타난 지도 계열 연구. 문화역사지리, 30(2), 46-74.
- 김기혁 (2019). 대동여지도를 통해 본 한양 도성지도의 하천 유로 계열 연구. 한국고지도연구, 11(1), 5-30. <http://doi.org/10.22787/oldmap.2019.11.1.001>
- 김호동 (2013). 한국 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 영유권. 독도연구, 15, 7-56.
- 동양문고. 출처 <http://www.toyo-bunko.or.jp/>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snu.ac.kr/>
-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출처 <https://www.sungshin.ac.kr/museum/index.do>
- 양보경 (1998). 『韓國의옛地圖』 韓國의옛地圖. 경산: 영남대학교박물관.
- 양보경 (2005). 독도의 역사지리학적 고찰: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 대한지리학회 컨퍼런스자료집, 1, 35-64.
- 양보경 (2015). 일본 동양문고(東洋文庫) 소장 한국본 고지도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50(6), 717-734.
- 양보경 (2016). 윤두서의 『東國輿地之圖』와 조선전기의 조선전도. 한국고지도연구학회, 8(2), 29-50.
- 오상학 (1994a). 鄭尙驥의 『東國地圖』에 관한 연구: 제작배경과 寫本들의 系譜를 중심으로. 地理學論叢, 24, 133-155.
- 오상학 (1994b). 鄭尙驥의 『東國地圖』에 관한 연구: 제작배경과 寫本들의 系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유종연, 정연경 (2020). 독도 관련 고지도의 기술요소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비블리아학회, 31(1), 163-192. <http://doi.org/10.14699/kbiblia.2020.31.1.163>
- 이기봉 (2007). 정상기의 『東國地圖』 제작 과정에 관한 연구. 규장각, 30, 95-125. <https://doi.org/10.22943/kyujg.2007..30.004>
- 이기봉 (2008). 정상기의 『동국지도』 수정본 계열의 제작 과정에 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20(1), 56-88.
- 이상태 (2007). 한국고지도 발달사. 한국지도학회지, 7(1), 31-43.
- 이진명 (2003). 프랑스 국립도서관 및 동양어대학 도서관 소장 한국학 자료의 현황과 연구 동향. 국학연구, 2, 1-43.
- 이혜은 (2013). 고지도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혜은 (2016). 고지도 목록의 接近點 확대 방안. *한국고지도연구*, 8(1), 113-131.
- 이혜은 (2018). 국외에 소장된 한국 고지도 자료의 현황. *한국고지도연구*, 10(1), 5-22.
<https://doi.org/10.22787/oldmap.2018.10.1.001>
- 전상운 (1988). *韓國科學技術史*. 서울: 正音社.
- 청주고인쇄박물관 (2017).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자료집.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프랑스국립도서관. 출처 <https://www.bnf.fr/fr>
- 한지희, 김효경, 이혜은 (2018). 프랑스국립도서관 필사본장서부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 연구. *서지학연구*, 69, 307-325. <https://doi.org/10.17258/jib.2017..69.307>
- 허태구 (2014). 규장각 소장 古地圖·邑誌類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한국고지도연구학회*, 6(2), 5-18.
- Andrew, P. (2014). *Cataloging Sheet Maps: The Basics*. New York: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1315809120>
- Bienes, G. (2019). Los mapas antiguos como fuente de información: aportes para su descripción documental. *Información, Cultura Y Sociedad*, (40), 173-198.
<https://doi.org/10.34096/ics.i40.5963>
- Mościcka, A. & Zwirowicz-Rutkowska, A. (2020). Description of old maps in the Europeana Data Model.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45, 315-326.
<https://doi.org/10.1016/j.culher.2020.05.009>
-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3). *Encoded Archival Description Tag Library Version 200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2017). *A Collection of Korean Historical Documents Own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Cheongju: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 Han, Jihee, Kim, Hyo-Kyoung, & Lee, Hye-Eun (2017). Research on Korean rare books in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9, 307-325.
<https://doi.org/10.17258/jib.2017..69.307>
- Huh, Tae Koo (2014). Establishment of old map & county almanac databases, currently in custody of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SNU. *Journal of the Korean Research Association of Old Maps*, 6(2), 5-18.

- Jeon, Sang-woon (1983).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Korea. Seoul: Jeongeumsa.
- Kim, Hodong (2013). It is proved by old maps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The Journal of Dokdo, 15, 7-56.
- Kim, Kihyuk (2018). A study on the types of old map on Jeju island river channel in 17~18th century.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30(2), 46-74.
- Kim, Kihyuk (2019). A study on the types of river channels on 『Doseongdo』 in Daedongyeojido. Journal of the Korean Research Association of Old Maps, 11(1), 5-30.
<http://doi.org/10.22787/oldmap.2019.11.1.001>
- Korean Center for Korean Studies Materials at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Available: <http://kostma.korea.ac.kr/>
- Kyujanggak Korean Studies Institute. Available: <https://kyu.snu.ac.kr/>
- Lee, Hye Eun (2013). Design of Metadata Elements for Old Korean Maps.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Lee, Hye Eun (2016). A Study on expanding access points of Korean old map cataloging. Journal of the Korean Research ciation of Old Maps, 8(1), 113-131.
- Lee, Hye Eun (2018). Investigating the status of Korean old maps in overseas. Journal of the Korean Research Association of Old Maps, 10(1), 5-22.
<https://doi.org/10.22787/oldmap.2018.10.1.001>
- Lee, KiBong (2007). A study on the production process of 『Dong-kook-ji-do』 made by Chung Sang-Ki. Gyujianggak, 30, 95-125. <https://dx-doi-org/10.22943/kyujg.2007..30.004>
- Lee, KiBong (2008). A study on the production course of revision series of Donggukjido by Jeong Sangki.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20(1), 56-88.
- Lee, Sangtae (2007). Development of old map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Cartographic Association, 7(1), 31-43.
- Li, Jin-mieng (2003). The actual condition of Korean study data owned by French National Library and French National Institut of Kriental Languages & Civilisations and the trend of study. Korean Studies, 2, 1-43.
- National Library of France. Available: <https://www.bnf.fr/fr>
- Oh, Sang Hak (1994a). A study on <Dong-kook-ji-do(Map of Korea)> made by Chung Sang-Ki. Journal of Geography, 24, 133-155.
- Oh, Sang Hak (1994b). (A) study on <Dong-kook-ji-do(Map of Korea)> made by Chung Sang-Ki: Focused on the process of map making and the genealogy of manuscript copie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Ryu, Jong Yon & Chung, Yeon Kyoung (2020).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scription elements of the old maps of Dokdo.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1), 163-192. <http://doi.org/10.14699/kbiblia.2020.31.1.163>
- Sungshin Women's University Museum. Available: <https://www.sungshin.ac.kr/museum>
-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8). Korean Collection at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vailable: <https://www.nl.go.kr/>
-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vailable: <https://www.museum.go.kr/site/main/home>
- Toyo Bunko. Available: <http://www.toyo-bunko.or.jp/>
- Yang, Bo-Kyung (1998). 『Old maps of Korea』 Old maps of Korea. Gyeongsan: Yeungnam University Museum.
- Yang, Bo-Kyung (2005). Dokdo island in the old maps of Korea. *Conference on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1, 35-64.
- Yang, Bo-Kyung (2015). The Korean old maps in Toyo Bunko, Japan.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50(6), 717-734.
- Yang, Bo-Kyung (2016). 『Donggukyeoji』 of Yun Du-seo and general maps of Korea in early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Research Association of Old Maps*, 8(2), 29-50.